

전남도, 여수에 1조 규모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투자협약

모아그룹 등 3개사 여수 무술목에 관광단지·호텔 건립 “신규 고용 창출·위축된 지역 관광에 활기 넣는 계기”

여수에 1조원 규모의 대규모 해양레저관광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모아그룹, ㈜여수레저개발, 여수웰리자파크관광㈜, 두제이산업㈜과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웰리자파크 관광단지 호텔 건립’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관광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해안권에 추진하는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박치영 모아그룹 회장, 송용민 여수레저개발 대표, 윤종섭 여수웰리자파크관광 회장, 윤경화 두제이산업 대표, 정기명 여수시장, 이재태·이광

일·강문성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모아그룹과 여수레저개발은 2030년까지 여수 돌산읍 평사리 일원 141만 5000㎡ 부지에 7010억원을 투자해 휴양형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한다.

200실 규모 5성급 호텔과 890실 숙박시설, 2000석 규모 컨벤션센터, 푸드테마파크, 해안 유원지(마리나), 18홀 규모 대중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 전문 건설사인 모아그룹은 2022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순위 전국 87위의 호남 중견 기업이다.

여수웰리자파크관광과 두제이산업은 여수 웰리자파크 관광단지 내 화양면 나진리 일원에 2025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지하 3층

지상 10층, 434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한다.

호텔은 전남 최초로 휴가지 일격근무(워케이션) 공간을 확보해 운영하며 반얀트리 카시아 호텔과 제휴해 세계적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게 된다.

여수 웰리자파크 관광단지는 2019년 관광 단지로 지정받았다. 지난 20일 개장한 2288m 길이의 루지 썰매장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업비 7000억원을 투자해 호텔·대관람차·청소년 수련시설 등 국내 최대 체험형 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모아그룹과 여수웰리자파크관광의 투자로 77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위축된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의 섬·해안·갯벌은 세계인이 꼭 찾아오고 싶어 하는 국제적 명품 관광자원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민간 관광개발 투자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가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무술목·웰리자파크 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모아그룹 박치영 회장, ㈜여수레저개발 송용민 대표, 웰리자파크관광(주) 윤종섭 회장, 두제이산업(주) 윤경화 대표, 정기명 여수시장과 1조원 규모의 관광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지난 1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에드윈 바손 세계철강협회 사무총장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왼쪽)에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명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 2년 연속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선정

포스코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상반기 회원사 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철강협회는 2018년부터 매년 140여개 회원사 중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선도 기업을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선정해오고 있다.올해는 10개 회사가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이름을 올렸으며 포스코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최우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우수 멤버 선정 ▲스티리아워드 또는 안전

보건 우수회원사 인증 최종 후보 선정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소재·공정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포스코는 상기 4개 조건을 충족했으며 수소환원제철 공동개발 노력, 2050탄소중립 선언, 선진 지배구조 구축 등 ESG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멤버로 선정됐다.

한편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제강부 김관형 대리가 지난 18일 세계철강협회가 실시한 제강 공정 경진대회인 ‘스틸챌린지(SteelChallenge-17)’에서 준우승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인구감소 해법 찾기’...공직자 대상 아이디어 공모

5월 9일까지 아이디어 접수...인구대응 전략 수립 반영

전남도가 인구감소 대응 해법을 찾기 위해 도청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우문인답(우리의 문제는 인구가 답이다)’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5월 9일까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출생아 수 감소, 고령화 가속화와 다른 지역으로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면서 연내 180만명 붐비가 우려됨에 따라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분야는 ‘주거·문화·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생활 양립·가족 친화 환경 조성’, ‘중장년 행복 시책’, ‘임신·출산·양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유입·정착 유도’ 등이다.

특히 MZ세대 직원의 특목 뛰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남형 인구 대응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4개 실국이 참여하는 인구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인 가운데 4월 말에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



광주자치경찰위, 범죄피해자 법률지원체계 마련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교육청·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찰서 등에서 법률상담에 참여하거나 국선변호사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한 지역 변호사 8명으로 채워졌다.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5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상담을 희망할 경우 변호사 별 상담요일을 지정하고, 사회적 약자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3-나단 372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진 병 호 (721204-1624713)
최 후 주 소 : 광주 북구 설죽로196번길 22, 1동 302호(용봉동, 유창허니맨션)

위 망 진병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4월 25일

공 고 인 : 진해민, 진해진
주 소 : 광주 북구 설죽로196번길 22, 1동 302호(용봉동, 유창허니맨션)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4월 18일
공 고 기 간 : 2023. 4. 25 ~ 2023. 6. 25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보험료부담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급여비	425,177원	217,177원	133,177원
비율	1.77배	2.1배	2.7배

www.nhis.or.kr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원은 근무 시간엔 야근이 없어야
생활 속의 위기를 살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기업 문화입니다.